

흙살림
HEUKSALIM



흙살림, 유기농에 건강을 더하다



흙살림은 친환경토마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과산유기농페스티벌에서 토마토 가공식품 등을 시음하고 전시한 홍보관 모습.

청원생명축제 토마토 가공식품 등 선배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새 법률은 기존의 안전·결과 중심에서 건강·과정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전체 대비 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이번 새로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는 흙살림의 철학

과도 잘 맞는다. 흙살림이 1991년 창립하면서 발표한 선언문에는 ‘농업의 토대인 흙을 살려 건강한 농업생산 활동과 이를 신명나게 하며 살아가는 농민농촌의 살림은 가장 시급한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은 불씨라도 되고자 우리는 흙살림 연구소를 창립한다’고 했다. 건강한 농업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흙살림의 나아갈 길이었던 것이다. 흙살림은 이런 건강을 중시한 창립선언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흙살림이 자랑하고 있는 친환경 토마토를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준비하고 있다. 흙살림은 1년 365일 어느 날이라도 건강한 식재료인 친환경토마토를 소비자의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생산·유통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보다 더 편하고 쉽게, 그리고 영양성분은 풍부하게 토마토를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을 연구·준비 중이다. 토마토 가공식품은 지난 과산유기농페스티벌(9월 20~21일)은 물론이거니와 청원생명축제(9월 27~10월 6일)에서 소비자들에게 시험적으로 선을 보였다. 이번 시음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다 나은 토마토 가공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삶을 예쁘게 가꾸어주는 똥”

흙의 인문학 강연... 한국화가의 신나는 ‘똥타령’

흙살림은 지난 9월 19일 충북 NGO센터(청주) 대회의실에서 인문학강좌 시리즈 ‘흙의 인문학’ 네번째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정구인 한국화가이자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사(사진)가 <흙과 똥 - 나는 어쩌다 ‘똥타령’ 작가가 되었나>라는 주제로 90여 분 간 진행됐다. 정구인 작가는 토끼 한 마리를 키우면서 파 껍질, 옥수수, 당근 껍질 등이 나올 때 마다 조금씩 줘보니 다 먹어치워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든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집에 토끼를 한 마리씩만 기르면 음식물 쓰레기 ‘0(제로)’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1가정 1마리 토끼 키우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때 토끼를 가까이 보고 애정을 갖고 돌보게 되면서 토끼똥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줌이 묻지 않은 똥들을 크기별로 분류하여 잘 건조시켜 놓았다가 색을 입히기 시작한 것이



다. 구슬처럼 멋지고 색깔이 모양을 뽐내는 똥들이 너무나 예뻐 이후 작품에 이 똥을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은 계기로 똥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똥을 품은 흙이 궁금해져 약간의 텃밭을 일구고 농사일을 해보니 먹거리에 대한 더 깊은 안목이 생긴 것이다. 이와함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환경이 훌륭해짐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한편 흙의 인문학 다섯 번째 강연은 오는 10월 10일(목) 오후 7시에 충북 NGO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영근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의 <흙을 땅으로 땅을 흙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흙의 인문학> 다섯 번째 강좌 안내

- 10월 10일 오후 7시 ● 충북 NGO센터
- 주제 : 흙을 땅으로 땅을 흙으로
- 강연자 : 권영근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양질의 유기물과 미생물이 가득한 흙살림 균배양체로 가을 작기 준비하세요!

친환경 고품질혼합유박

양분파괴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농협 계통



흙나라유박
친환경 혼합유박-펠렛(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공시-3-3-189

목록
공시품

토양관리용 미생물발효유기질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농협 계통



흙살림 균배양체
고품질토양미생물제(20kg)
+유기물 40% 이상
공시-3-3-152

목록
공시품

고품질 발효아미노산그래놀

Non-GMO 대두박이 함유되어 질소 및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되어 토양항균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흙살림 아미노볼
아미노산 그래울(15kg)
특허미생물처리(항균)
7.5-2.5-1
공시-3-3-191

목록
공시품

토양관리용 발효유기질펠렛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된 발효유기질 펠렛. 피마자박이 배제되어 리신 독성에서 안전합니다.



흙나라 발효펠렛
균배양체 펠렛형(15kg)
주장박, 대추박, 부식산 사용
특허미생물처리(항균)
공시-3-3-192

목록
공시품

사진으로 보는 9월의 업무협약(MOU)



휴살림, 충북인삼협동조합과 인삼제품 공동마케팅 협약

휴살림은 지난 9월 19일 충북인삼협동조합(청주) 대회의실에서 충북인삼협동조합과 충북 인삼제품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태근 휴살림 회장과 이규보 충북인삼협동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각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식과 함께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충북 인삼산업 발전과 유기인삼 재배확대에 기여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것이며, 향후 충북 유기인삼 재배 추진과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 추진을 위해 공동 홍보 마케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휴살림, (주)이노드와 친환경농업 드론 기술 확산 협약

휴살림은 지난 8월 23일 (주)이노드와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편의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이노드는 지난 8월 1일 휴살림 토종농장에서 드론 활용 설명회 및 드론 시연 행사를 가진 회사로, 드론 제어의 핵심 부품인 FC 개발을 통해 드론 생산의 국산화를 높이고, 응용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임무 수행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정밀분사를 통한 방제 현장에 맞춤형인 '케이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약제 10kg을 탑재해 약 1ha를 방제할 수 있다. 분사량과 속도 제어로 비산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22>

■ 도시농업을 위한 퇴비의 제조법과 사용법
도시농업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흙은 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토(배양토)이다. 이 상토의 주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한 피트모스나 코코피트라고 불리는 유기물과, 무기물인 질석과 펄라이트를 적당하게 섞은 뒤 화학비료를 더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화학비료 덕에 약 1개월 미만에는 효과가 있지만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발효퇴비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의 맛과 영양, 또는 흙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미생물의 병충해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수입산 부산물이나 폐기물로 만든 흙에서 직접 작물을 길러 먹는다고 '무공해 농산물'이라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땅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하여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런 흙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논밭에서 재배한 것보다 맛이나 영양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농업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와 주변의 풀 및 화초의 잔재물 등으로 퇴비를 만든다든지 발효퇴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땅심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 과정



을 가꾸어주었으면 한다. 퇴비 만들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미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분과 충분한 공기, 그리고 알맞은 양분이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 더 상세히 말하면 먹이와 수분, 온도, 산소, 산도(pH), 기간 등이 적당해야 한다. 퇴비를 만들 때 이러한 6대 조건을 갖추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미생물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좋은 퇴비란 질 좋은 재료에 좋은 미생물이 다량으로 번식한 것이다. 모든 유기물은 그대로 두면 결국 부패한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사람의 손을 가해 퇴비로 만들면 효과적으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기물의 퇴비화 과정이다. 특히 요즘처럼 음식물 찌꺼기 처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각 가정이나 단체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면 그 처리에도 도움이 되고 땅심도 높일 수 있어 국익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다.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각종 찌꺼기와 과일껍질, 차와 커피 찌꺼기, 잔반, 생선내장, 비지 등 모든 썩는 물질은 유기질로서 퇴비로 만들 수 있다. 글 석종욱 (사)휴살림연구소 대표

식물추출물 **썩들어**

작물충해관리용자재

- 초강력 살충제 등장!!
- 그 무엇보다도 비교 불가!
- 썩! 듣는 휴살림 최신 살충제
- 마늘유 함유로 살충 효과는 기본!
- 해충 기피 효과는 보너스로 1+1!!!



진딧물, 응애 효과 사진 잎벌레 효과 사진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5-047
- 사용 방법 : 10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 해충 : 진딧물, 응애, 잎벌레, 각지벌레, 선녀벌레, 가루이류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휴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장 경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28126)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28138)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라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28000)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휴살림연수원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알록달록 무늬가 있는 까투리찰벼

윤성희 소장의 종자 이야기<12> 우리의 벼를 찾아서(3) : 대추찰, 빨간찰, 까투리벼

벼 껍질이 핑깃털색을 닮아 붙여진 이름 붉은색을 띤 벼에는 대추벼·홍나 있어

토종 벼에서는 현재 장려품종으로 개발된 품종들에서는 보지 못하는 벼의 색깔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특히, 붉은색과 얼룩무늬가 뚜렷한 토종 벼들을 보면 벼의 다양성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렇다고 현미 색깔까지 붉거나 얼룩이 있지는 않다. 이번에는 붉은색의 대추벼와 핑 색깔의 까투리벼를 찾아가 본다.

1. 대추벼, 대추찰벼

1913년 발행된 조선도품종일람(朝鮮稻品種一覽)에서는 조나(棗糲, 대추찰)가 수집된 지역이 전국 70개 군이다. 100여 년 전에는 군(郡)이 지금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었으므로, 지금으로 치면 좀 더 좁은 지역일 수도 있지만 대추찰이 전국적으로 재배되어 온 토종벼인 것만은 틀림없다. 외형이 유사했을 메벼(棗稻, 대추벼)로 수집된 것이 33품종인 것을 보면, 대추이름을 갖는 붉은 벼는 메벼보다 찰벼가 좀 더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홍성군지에는 재배되던 재래종벼 중에서 대추벼가 등장하기도 한다.

대추는 익으면 붉은색을 띤다. 대추벼라 함은 붉은색을 보여줘야만 할 운명을 타고

났어야 한다. 대추는 한자로 '조(棗)'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한자어와 상관없이 '대추, 대초'로 불렀겠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한자식 표현도 우리말인 <대추>와 발음이 비슷한 '대조(大棗)'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조선후기 평생 농팡이(룸펜)로 살았던 이가 있었다. 이옥(李鈺 1760 ~ 1815)이다. 200여년이 지나 뒤 늦게 발견된 그의 저서에 <백운필(白雲筆)>이 있다. 그가 당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벼 품종도 있었고, 그 중에 붉은색 메벼에 대한 언급은 이렇하다.

오대추벼(五大棗稻), 대추벼(大棗稻), 중달대추벼(中達大棗稻), 거울대추벼(巨兀大棗稻), 홍도벼(紅稻稻, 붉은벼)는 모두 붉은 품종의 벼이다. 그런데 오대추는 까끄라기가 없고 일찍 여물며, 대추는 까끄라기가 있고 줄기가 길며, 거울은 까끄라기가 매우 길고 적색이며, 홍도는 '호상벼[好嘗稻]'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일찍 여문다.

홍도를 빼면 대추벼를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특이한 점인데, 근거는 뭘 수 없지만, 오대추벼는 "조생종 대추벼", 중

달대추벼는 "중생종대추벼", 거울대추벼는 "만생종 대추벼"로 봐도 될 듯싶다. 이옥은 익는 시기의 빠르고 늦은 정도에 따라 대추벼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옥과 생물연대가 겹치는 정학유(1786~1855)의 농가월령가에도 대추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학유는 다산 정약용의 아들이기도 하다.

대추는 전국 어디서나 생산되지만, 지금도 대추의 고장 하면 충북 보은(군)을 으뜸으로 친다. 조금만 검색 해봐도 민요에 "청산보은에 대추벼"란 구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산"은 지금의 옥천군 청산면, 청성면 일원을 말하고, 보은이야 예나 지금이나 "보은"이다. 여기서 재배되던 대추벼가 여러 가지 있었으니 이삭이 모두 모두 "붉은" 빛을 띠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수량이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겠지만, 대추벼야말로 그 색깔에 있어서 심미적 가치를 높여주는 품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밀다리 대추벼와 등트기 경상벼라 [농가월령가. 9월령. 정학유]

청산봉은 대추벼 [양주 소놀이곳.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0호]

보기 좋다 양토찰 울긋불긋 대추찰 [민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 홍나, 붉은찰

이옥의 백운필에 대추벼와 함께 붉은색 벼로 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홍도(紅稻)가 있다. 조선도품종일람(1913)에 홍도 30종, 홍나 23종이 등장하며, 이 자료집에 붉은 紅자가 들어간 재래종 벼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200여 년 전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홍나(紅糯는 정음표기로는 불경찰(붉은찰)로 기록되어 있다. 붉은찰은 가장 좋은 찰벼로 기록하고 있다.

홍나 紅糯 【불경찰. 까락이 있고 적색이다. 찰벼가운데 가장 좋은 품종이다】 [임원경제지 분리지. 서유구]



홍나 - 흠살림토종연구소 재배한 끝부분만 붉은색의 홍나(紅糯)

1990년대 초 민속의학으로 인기를 끌었던 책 「神醫김일훈」에 벼 관련한 대목을 보면 빨간찰이 등장한다. 이는 "붉은찰"의 사투리식 된 발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김일훈은 대궐찰벼가 바로 빨간찰이라고 구술하고 있지만, 임금이 먹었다는 "대궐도"에 대한 기록은 붉은색이 아니라 오히려 흰색벼라는 기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에, 김일훈의 빨간찰은 한자로 紅糯가 아닐까 싶다. 이야기가 분분한 대궐도(대궐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어쨌거나 붉은색인 찰벼가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었음을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흠살림에서 2010년에 재배한 홍나는 벼 끝부분만 붉은색이 있었다.

옛날에 나라님에 진상하는 여주의 대궐찰이라고 있거든, 대궐에만 보내는 그 빨간 찰. 그런데 나락으로선 빨간 찰이 제일이고, 서속으로선 생동찰이 제일인데. 그건 여기서 못 구하고, 대궐찰도 지금은 없어요. 여주 이천엔 그것도 이젠 끊어졌어. 그러면 지금 아끼바리 찰쌀도 돼요. 【神醫김일훈. 1990】

3. 까투리찰벼, 핑찰벼, 핑벼
민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토종찰벼 중에 또 하나가 "까투리찰벼(雌雉糲, 자치나)"이다. "핑찰(雉糲, 치나)"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메벼는 핑벼로 불렀다. 벼 껍질(왕겨)에 핑 깃털의 색깔처럼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본다면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어려울 성 싶다. 민요에서 벼의 특징을 가사로 가장 잘 잡아낸 품종으로 볼 수 있다.

아롱대롱이 까투리찰 [풍등가. 경기잡가]
알그랑 찰그랑 까투리찰 [모심는 소리. 용인 백석]
알록달록에 까투리찰베 [음성 고사소리. 한국민요대전. 노희태. 1992]
알록달록 까투리찰이며 [청주시 무가의 고사덕담. 한국구비문학대계. 1981]
얼룩덜룩 까투리벼 [양주 소놀이곳.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0호]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까투리찰벼(雌雉糲)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충북 등 전국 30개 군, 핑찰벼(雉糲)가 8개 군, 메벼인 핑벼(雉稻)가 6개 군에서 수집되었다. 1930년대 전후 당시 문화의 중심지랄 수 있는 서울(경성)에서 완성된 민요 『풍등가』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넓게 알려진 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양주소놀이곳의 종자타령부분에도 등장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 및 충청지역 민요에 흔하게 등장한다. 메벼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무늬를 가지면 까투리벼로 부르기도 하며, 조선후기 임원경제지에는 "핑의자채"벼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핑을 모티브로 한 벼의 품종명은 의외로 역사가 깊다고 할 것이다.



[까투리찰벼(자치나)]. 핑의 깃털과 같이 알록달록한 무늬가 특징이다.

까투리찰벼는 까락이 있는 품종도 있고, 까락이 없는 품종도 있지만 무늬는 알록달록한 것이 영락없는 핑을 연상시킨다. 벼가 붉은색인 대추벼와 비슷한 면모도 있지만, 까투리찰벼는 알곡의 길이 방향으로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글 윤성희 흠살림토종연구소 소장



대추찰벼

토종@흠살림

대추찰벼 - 이삭이 붉은 것이 특징이다.

“풀 깎지않고 눅혀서 농사지어요”

제천 꽃댕이농원 이정수 대표의 농사법

“유기농업의 가장 힘든 부분은 풀이다”라고 유기농업을 하는 농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풀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농부들의 자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제초제부터 시작해 예초, 태우기를 비롯해 비닐·부직포 멀칭이나 피복작물을 키우기도 한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에서는 제초제를 쓸 수는 없다. 과수원에서조차 마찬가지로 풀을 관리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먼저 청경채배로 과수 이외의 식물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다. 제초제 살포나 로터리 작업 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재배법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강우시 양질의 표토층이 유실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음으론 피복자재를 설치하는 것이다. 부직포 등의 피복자재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피복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헤어리베치나 들묵새 등 피복작물을 통해 잡초를 관리할 수 있지만 초종

의 다양성이 제공하는 유리함을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초관리다. 하지만 예초엔 힘이 많이 들고 예초를 통해 인위적으로 초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북 제천에서 사과와 배를 유기농법으로 키우고 있는 이정수 꽃댕이농원 대표는 <자연초종 키워 눅히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풀을 관리한다. 땅의 지하부를 포함한 유기물 확보에 유리하고, 통기성, 배수성 등 토양의 물리적 조건에도 도움을 준다. 또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자연에 의한 미네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정수 대표는 이런 풀눅힘 농법을 10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다. 봄풀을 자르지 않고 키우면 연한 풀은 스스로 누워지고 억센 풀은 90cm 정도 자란다고 한다. 그러면 과수원 고소차에 롤러를 단 농기계로 적화, 적과, 봉지작업 시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풀을 쓰러뜨린다. 이 풀들은



이정수 대표는 롤러를 단 고소차를 이용해 풀을 베지않고 눅혀서 토양의 유기물을 늘리는 농사를 짓고 있다.

몇일 지나면 다시 일어서지만 다 자라서 씨앗이 달리게 되면 무거워서 일어서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1년에 두 번 고온다습한 시기와 착색기에

는 통풍과 과일의 착색을 위해 풀을 자른다. 이런 풀눅힘 농법으로 과수원 토양의 유기물은 1.3%에서 4.1%까지 늘어났다고 한

다. “잡초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태학이고 또한 토양을 잘 보존하는 수단”이라고 이 대표는 자신있게 말한다.



청년귀농 장기연수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인증에 대해 배우고 있다.

청년귀농 장기교육 일지

친환경 인증 만만치않네!

제도와 절차, 심사과정 참여로 배움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는 사람, 농장, 재배과정, 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청년귀농 장기연수생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 농장에서 인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절차 등을 이론 수업을 통해 배우고, 농장지적도, 생산계획서, 농장일지 등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서류 접수 후 실제 인증심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농장에서 진행된 심사 과정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에 주목한다.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부가 실제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농

장의 재배조건이 친환경농업에 적합한지, 작물의 재배 과정이 실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확인은 서류와 면담, 실사, 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인증신청서의 서류를 점검하고, 농부를 면담하고, 농장을 실사하고, 농산물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증에 어긋나지 않고 적합한 것이 확인되면 인증서가 교부된다. 연수생들은 인증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물으면서 인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무농약과 유기농 두 가지 인증이 있으며,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모투쌩

작물병해관리용자재

- 농자재 사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다기능 병충해 방제제!
- 제독된 유황으로 약해 감소! 부식 감소! 침투 증가! 확산 증가!
- 식물체 내 물질운반에 도움을 주는 유황 공급으로 생육 및 품질 향상은 덤!!!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6-016
- 사용 방법 : 25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 작물 : 오이, 상추, 토마토, 고추, 수박, 마늘, 딸기 등
- 대상 병해 : 잎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무름병, 흑색썩음균핵병, 흰가루병, 뿌리혹병, 탄저병,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가을 허브의 최대 적은 거세미 유충

아가씨의 꿈이 자라는 허브 농장<12>

새벽 일찍 땅속까지 뒤져도 못찾기 일쑤

9월에 들어서며 새벽과 한낮 기온의 일교차가 제법 커졌다. 일교차가 커지면 잎을 수확하는 허브에 꽃이 피는데, 이런 경우 일일이 꽃을 따줘야 하기 때문에 수확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동력 투입도 증가하게 된다. 점점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격차가 벌어지면서 온도에 따라 하우스 문을 열고 닫으며 하우스 내 온도환경을 조절하는 중이다. 하우스 안에는 새로 정식한 허브들이 자라고 있다. 애플민트, 페퍼민트, 바질, 타임, 파슬리 등 여러 종류를 섞어 심었다. 9월에는 아직 어린 개체들이 대부분이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량씩 수확하여 납품하고 있지만 10월 말에서 11월쯤이면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즈음 허브하우스의 최대 적

은 곰팡이와 거세미 유충이다. 둘 다 바질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특히 곰팡이는 다루기가 훨씬 까다로운 것 같다. 바질을 위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파릇하고 신선할 수 없는데, 뒤집어서 보면 군데군데 검은빛 곰팡이 포자가 털처럼 자라 있는 것이 보인다. 이 상태로 그냥 놓아두게 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는 잎이 노랗게 변하며 시들어 죽어버린다. 한군데서 시작해서 근처로 퍼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불규칙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 면역력이 떨어진 개체만 감염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된다. 발견 되는대로 즉시 뽑아버리고 다시 보식하거나 씨앗을 새로 뿌렸다.

거세미 나방 유충의 경우에는 정말 알미운 적이다. 먹지도 않으면서 하루에 약 5주씩 떠



올해 유독 가을비가 잦아 작물에 물을 줄 일이 줄었다. 하지만 과습을 싫어하는 블루베리는 죽어가는 묘목이 발생했다.

잎 아래 줄기를 잘라놓는다. 수난을 당한 바질은 지상부 약 1cm 짧은 줄기만 남았으니 더 이상 잎이 자라지도 않고 말라버린다. 범 죄 현장을 잡

으러 새벽 일찍, 밤 늦게 바질 주변을 찾아보아도, 잘라진 줄기 아래 흙을 열심히 파보아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제일 건강하고 맛있어 보이는 모종만 골라서 잘라버리니 더 속이 상했다. 9월 말이 되니 곰팡이와 거세미의 피해가 거의 줄어들었다. 하지만 살아남아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종과 새로 심어 크기가 작은 개체들 간 성장 속도도 많이 다르고 크기도 달라, 정리하고 새로 심어야 할 지 고민이 된다.

올해는 정말 특이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마 기간이라 하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더니, 가을이 무르익는 시점에 늦은 장마와 태풍으로 계속 비가 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씨가 좋아하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 주는 선물을 참 좋아한다. 햇볕이 뜨겁지 않아 하우스 일하기가 편하고 수분 증발량이 적어져 육묘장에 물을 조금만 줘도 된다. 하우스 밖 뜰밭에 심은 꽃과 채소에 물을 안줘도 되고 비가 그친 후

에 하늘과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과 모기가 많이 없어지는 점도 좋다. 한편, 두 가지 단점이 있다면 비를 맞은 잡초가 빨리 자란다는 것과 과습을 싫어하는 블루베리가 문제이다. 계속되는 우기에는 산 위에서 온전히 비를 맞아야만 하는 블루베리들에게 가혹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엔 관수를 해주면 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아줄 수 없기에 과습으로 죽는 묘목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다. 특히 스파르탄이라는 품종이 과습에 제일 약한 편이어서 제일 먼저 고사목이 발생하였다. 처음 심을 때 물 빠짐을 좋게 하려고 소나무 가지와 펠라이트를 섞어서 심었지만 며칠씩 계속되는 비에는 어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오는 비를 실컷 즐기기로 했다. 바람이 매서워 충남 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지난 태풍 링링이 왔을 때만 제외하면, 꽤 특별하고 낭만적인 가을을 보내는 중이다.

글 이수진 농부

너무 깊게 심은 딸기모는 병에 취약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딸기농장<12>

관부가 흠에 묻혀 물에 닿으면 습해 병증

농사집의 9월은 미니밤호박과 딸기를 정식하고 가을 재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초반에 튼실하게 자라면 그 이후에 병충해도 적고 관리가 좀더 수월하다.

올해 가을 미니밤호박은 8월 후반에 정식을 했다. 그 이후 2주 동안은 자라기를 기다린다. 그 사이에 딸기 정식 준비를 하고 딸기를 정식하면 된다. 미니밤호박은 2주 정도 자라면 몸체가 커지고 마디마디마다 결순이 나와 정리해줄 시간이 된다. 딸기는 정식하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10여 일이 중요하다.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물 관리가 중요하고 뿌리가 정상 활동을 할 때까지 잎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주어야 한다. 딸기로서는 가장 약한 어린아이 같은 시기이기에 참 세심히 봐주어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두 작물을 비슷한 시기에 시작

하기 때문에 작업 순서를 잘 짜야 하고, 급한 일이 아니면 9월은 하우스에 꼭 매여 작업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실재였다.

가을 미니밤호박은 초반에 흥역을 치렀다. 육묘하는 시기에 나방이나 나비들로부터 보호를 해줬어야 했는데 못했나 보다. 호박 정식을 하고 그 어린 잎들을 애벌레들이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쁘다고 내버려뒀으면 잎을 다 먹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농부의 발걸음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들여다보아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다. 애벌레들이 작고 잎 색깔과 똑같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지만 자기가 먹고 싹 뚫은 곳이 어디인지 못하는가 보다. 뚫이 있는 곳에 애벌레가 있기에 손으로 콧코 집어낼 수가 있었다.

딸기는 정식을 9월 6일에 했다.



애벌레를 찾기 위해 호박잎을 하나 하나 뒤집어 보기도 한다.

이제 뿌리가 잘 내린 모들은 새 잎도 두 장 정도가 나왔다. 병이 있었던 모종은 이미 죽거나 잎에 윤기가 없고 시들어간다.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하다. 고온이면서 습할 때 병이 많이 온다. 10월까지의 비닐하우스는 고온기이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 빨리 키우기 위해 물과 영양분을 자주 주면 습하게 되어 병이 오기에 약간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해주어야 한다. 딸기는 물을 좋아하지만 습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참 묘한 말이다.

딸기는 정식할 때 심는 것을 잘 해야 한다. 모든 잎과 꽃과 열매가 생성해 나오는 관부가 흠에 묻혀 물에 닿으면 습해져서 병이 오는 원인이 된다. 그러기에 관부가 흠에 묻히지 않도록 심어야 한다. 항상 심어주시는 분들과 중요하게 강조를 하며 일을 하지만 많은 양을 심다 보면 잘못 심어 너무 깊게 심기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모들은 초반에 뿌리가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줘야 하기에 습해서 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딸기 심은 초

반에는 깊게 심긴 모들을 관부가 흠에 묻히지 않도록 하나하나 찾아서 작업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딸기의 품종은 설향이다. 국산 품종인 설향은 국내 딸기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병충해에 강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딸기이다. 봄에는 좀 무르다는 단점이 있다. 병충해에 강하기에 친환경 농사에도 제격이다. 추위에도 강해 겨울 농사에도 최저 5도까지 난방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농사집에서는 난방을 해주지 않는다. 외부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의 냉해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전남 강진이기에 따뜻함을 믿고 조금의 피해는 감수를 하려 한다. 겨울 딸기를 위해 많은 석유와 전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친환경 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 감사할 따름이다.

농사집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사, 친환경 농사를 이어가며 농부로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글 이남연 농부

고대 그리스적 사유의 특징(1)



**박석준 원장의
농사에 길을 묻다<19>**

흔히 서양 문명의 출발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부르는 지역은 에게해를 둘러싼 지역과 그 인근의 많은 섬들인데, 서쪽으로는 발칸 반도(오늘날의 그리스 영토), 동쪽으로는 아나톨리아(오늘날의 터키) 해안을 그 측면으로 하고 크레타와 키프로스 섬,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대 그리스) 등을 포함한 것이다. 대 그리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험준한 산맥이 본토를 가로지르며 평야와 계곡의 울타리가 되어, 20~30% 정도만이 경작 가능한 땅이었고 그나마 토양도 척박했다. 또한 그리스 해안은 요철이 심하였고 대부분의 정착촌은 바다에서 40마일(64.3km) 이내에 건설되었다(토머스 마틴, 『고대 그리스의 역사』).

폴리스 사이에는 지리적, 정치적 장벽이 있어서, 육지보다는 바다를 건너 교류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 전체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문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흔히 문명은 강 또는 초원에서 생기곤 했지만 그리스 문명은 바다를 한가운데 둔 독특한 문명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구조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로 거대 권력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지리적 구조만이 아니라 미케네 문명이 붕괴되면서 생긴 커다란 정치적 공백이 발생했고 그 틈새를 뚫고서 제왕적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규모의 독립된 도시국

가가 생길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

해양 문명은 강한 모험심을 필요로 하며 척박한 땅은 무역을 발달하게 만들었다. 우직하게 땅만 파면 되는 농사와는 달리 장사를 하려면 말을 잘하고 계산이 빨라야 한다. 그래서 말, 계산, 화폐가 발달하고 합리적으로 사리를 따지는 문화가 성립했다. 또한 온화한 기후는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인 성품을 길렀다. 이러한 그리스 문명의 특징은 로고스(logos)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는데, 로고스는 이성에 기초한 말, 언어, 근거와 설명, 명제, 정의(定義), 담론과 주제, 계산과 비율, 절도와 균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정우, 『세계철학사』 1).

고대 그리스의 기후는 세계에서 최고(헤로도토스)였고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 빛 바다와 불규칙한 해변 등은 아름다웠지만 그리스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바다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상인들은 이익을 쫓아 항해에 나섰지만 파도 사이에서 죽어야 하는 끔찍한 운명도 함께 해야 했다(헤시오도스, 『노동과 나날』,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 재인용).

고대에 ‘그리스’라는 도시국가 없었다. 다만 그리스 도시들과 여타 공동체들이 종교적 방식으로 표현된 공통의 문화로 연결되어 있었다.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300년까지 폴리스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약 1000개가 있었다(폴 카

틀리지, 『고대 그리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영토적 국가적 실체라기보다는 일련의 사상과 실천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의 집합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고대 그리스의 역사』).

고대 그리스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대체로 인도-유럽인의 이동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본다. 인도-유럽인의 이동 마지막 단계였던 기원전 2000년경 전 유럽에 엄청난 파괴가 자행되었다고 한다. 역사 시대에 등장하는 그리스인들은 바로 이 난폭한 침입자의 후예다(『고대 그리스의 역사』).

시민권에 바탕을 둔 폴리스는 대체로 기원전 750년에 처음 나타나 8세기 뒤인 로마 제국의 시작 때까지 그리스의 정치 사회조직의 지배적 형태였다. 시민의 재산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반적 수준의 법적 평등을 제공했다(물론 미케네 시대와 후기 암흑시대에는 차별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폴리스들은 서로 동맹 혹은 연합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 폴리스는 충분한 경작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아테네(성인 남자 4만, 노예와 비시민 등 수십 만)를 제외하면 시민 수는 수백 명에서 2천 명 정도인 경우가 보통이었다. 이런 조건 곧 전제권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고 노예와 여자를 제외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의 직접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우며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인 폴리스에서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폴리스는 대부분 농경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과 무역, 전쟁이 주요한 경제행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농촌 또는 식민지를 착취하여 성장하고 도시에서는 유통, 곧 상품의 교환과 소비가 주요한 경제행위가 된다. 더불어 해양도시로서의 특징으로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 융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약탈과 폭력 역시 일상화한다.

원자론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다. 각 폴리스는 하나의 원자로 간주되며 본성상 폴리스에 살게 되어 있는 존재(아리스토텔레스, 『정치』)인 개인 역시 하나의 원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의 출발은 탈레스일 것이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의인화되었던 자연을 자연 자체로 인식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과 분리된 자연으로 인식한 것이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 또는 원리로서의 물을 말했다는 것은 세계의 통일성을 찾았다는 말이다. 나아가 이는 자연의 합법칙적 인과성이라는 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아르케라는 말은 제1의 원리 혹은 원소를 의미하게 된다(콘스탄틴 밤바카스, 『철학의 탄생』). 탈레스의 생각은 신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자연과학적이라는 의미에서 과학의 출발점이자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고대 그리스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다.

글 **흙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흙살림 **대용량/축사용** 균배양 **톱밥**

국내산
100%

국내산 천연목재만으로 만든 톱밥에
흙살림균배양체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통기성 및 약취제거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품의 특징

수분함수율(%)	37~38%
용도	축사 깔개용, 퇴비용,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등
포장단위	톤백, 마대자루, 벌크
품질	잔류농약검사를 마친 1등급
가격	전화문의

■사용방법

- 양계장 5~10cm, 우사 10~30cm, 돈사 6~10cm 정도 덮어줍니다.
- 매 2~3일 마다 발효톱밥을 배설물 위에 덮어줍니다.
- 가축이 발효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매 7일 정도마다 발효톱밥을 소비된 만큼 보충해줍니다.

■포장단위



마대



톤백



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www.heuksalim.co.kr

구매문의
043-216-2958

신제품

신간도서 안내

오철수 <생명리듬>

시로 읽는 절기 이야기

오철수 시인이 시를 매개로 절기를 이해하고 새롭게 느끼는 새 책 <생명리듬 - 시로 읽는 절기 이야기>를 펴냈다. 오 시인은 흙살림 농장에서 실제 1년간 농사를 지으며 절기를 온몸으로 느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새 책에 대한 소개는 이태근 흙살림 회장의 추천사가 제격일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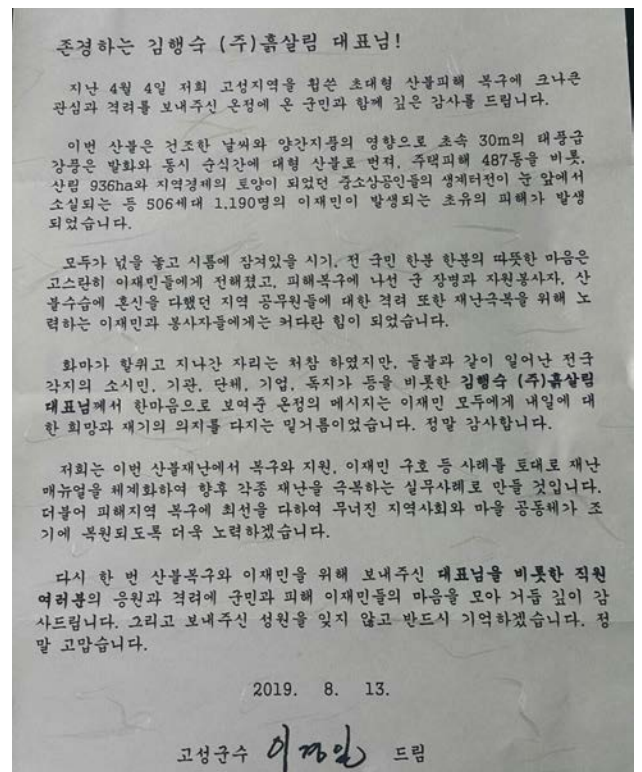


“농사는 계절의 순환과 맞물린 위대한 사건이다. 적당한 햇빛, 때맞추어 내리는 비, 하물며 한파와 눈보라와 아침이슬 한 방울까지도 농사라는 사건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다. 농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일구는 장대한 드라마인 것이다. 농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농부들은 계절의 변화를 읽기 시작했고, 그것을 노래로 시로 그림으로 문자로 전하고 전한 것이 바로 절기의 지혜이다. 절기의 지혜는 곧 노동과 휴식, 협동과 축제를 아우르는 삶의 지혜이자 풍성한 문화의 토양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시인들이 읊은 사계의 시들을 사다리 삼아 우리를 절기의 지혜 속으로 인도한다.”

고성군수, 흙살림에 퇴비지원 감사편지

이경일 고성군수가 지난 8월 13일 흙살림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사진)를 보내왔다. 이경일 군수는 흙살림의 퇴비 지원이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의지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않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감사의 마음에 편지에 담았다.

한편 흙살림은 지난 4월 고성군을 비롯해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퇴비(흙살림 균배양체) 10톤을 지원했다. 본격적인 영농 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농사지를 엄두조차 못내고 있던 농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 농부들이 퇴비를 통해 땅을 살리고 그 힘으로 역경도 극복해나가기를 응원하였다.



석종욱 <농사는 땅심이다>

지속적·고품질·다수확을 위한 토양관리

석종욱 흙살림연구소 대표가 ‘농사 순서의 첫 번째는 땅심 살리는 일’이라며 새 책 <농사는 땅심이다 - 지속적·고품질·다수확을 위한 토양관리>를 출간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전국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나 “땅심 살리기” 교육을 해오고 있는 저자의 토양관리 노하우가 가득 담긴 한 권이다. 이 책은, 토양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시적 처방만을 내리는 여타 토양 관련 도서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는다. 문제 있는 토양을 시급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단기적인 토양관리 방안도 제시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 땅심을 살려 지속적으로 고품질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농사 원리를 수미일관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농사의 가장 근본인 땅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땅을 알고 땅심을 높이는 기술을 체득함으로써 건강한 작물을 기르고,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농사에 성공할 수 있다.

전국 최고품질! 김장 기획전

“힘들게 절이지말고 괴산절임배추로 편하게 김장하세요!”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11월 14일부터 순차 발송 됩니다.

- 구매안내
- 고객센터 1544-1092

N 마켓투유

- 네이버에 마켓투유 검색
- 마켓투유에서 “절임배추” 검색 구매!

괴산 절임배추 (진공포장 / 일반포장)

김장양념



한국유기농인증원

한국유기농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기농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간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지점 주소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목빌딩 408-2호
전화 043-715-9526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큰 바람과 비에 ...

☞ 농둑에서 키키진 괴포기를 비어놓고 비닐하우스가 창도 닫고 뚫도 닫았습니다. 잡에서는 이중창을 모두 닫고 대뚫도 흔들림없이 빗장을 걸었습니다. 큰바람이 오신다니 두터움 짝들수 없었지만, 사람이 할수있는 일 마하고 나서는 마음 편안하게 기다릴 밖에 없었습니다. 뛰어야 한다면 다 감당하고 뛰어야지요. 자원은 수는 밤잠에서 새일이 떠날 때도 진입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그 큰바람과비에 쓰러지고 쓰러지고 잡기터라도 그걸 패배로 받아들이는 일은 아닙니다. 비바람속에 씩씩하게 서있고 싶습니.



천연규산과 천연칼륨 공급을 한방에~!

미라클K

유기농업자재 공시-1-3-271

마그마 광물의 천연규산과 다양한 무기미네랄 원소를 초미립화한 제품으로 수도작의 도복방지와 수확량 증가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복 방지, 병충해 감소
- 천연칼륨(K2O 11%내외)이 높아 잎의 조직을 치밀하게 함
- 광합성 증가, 미질 향상
- 증수에 탁월한 효과 : 도정수율 향상(쪽정이 감소)
- 나방류의 기공을 막아 나방류 발생 억제 및 해충 기피 효과



미라클K와 다른광물 조성성분 비교

종류	이산화규산 (SiO ₂)	산화칼륨 (K ₂ O)	산화알루미늄 (Al ₂ O ₃)	산화나트륨 (Na ₂ O)	산화마그네슘 (MgO)	산화제이철 (Fe ₂ O ₃)	인산 (P ₂ O ₅)	원적외선	음이온
미라클K	64.5	11.2	18.7	2.9	0.03	0.18	0.34	0.928~0.930	600개/cc
액반석	70.6	3.5	14.1	3.2	4.3	1.20		약간	미세
흑운모	68.3	6.5	14.8	2.8	0.07	4.05	0.32	0.906	미세
천매암	73.2	1.82	20.2	2.45	1.82		0.16	0.924	미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험성적서 제11-02248 참조



천연수용성칼슘제

유기튼튼칼

- 고순도의 미세한 탄산칼슘 분말을 천연유기산과 결합시킨 속효성 천연 수용성 칼슘제입니다.
- 칼슘은 작물과 과실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며 결핍을 예방하고 저장성을 높여줍니다.
- 전통방식으로 장기간 숙성시킨 목초액의 천연유기산이 작물의 양분흡수율을 높여줍니다.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2-058
- 사용 방법 : 생육 중 엽면 살포
- 적용 대상 : 배추 호박, 토마토, 상추, 브로콜리

방문



서천군한농연회원 견학
(사)한국농업경영인서천군연합회 회원이 9월 20일 <유기농업 건강한 농업생산활동 현장 견학>차 휴살림 청주센터를 방문했다. 서천군 회원들은 친환경농업을 위해 28년간 끊임없이 활동해온 휴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받고, 휴살림의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양계농협조합장 방문
정성진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이 9월 23일 휴살림 청주센터를 방문했다. 정 조합장은 휴살림의 고품질 가축사료인 '발효도움' 등과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방축골작목반 출범식 참석**
휴살림은 지난 9월 2일 청주 흥덕구에서 열린 방축골 친환경작목반(김봉기 대표)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건넸다.

휴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후원도 가능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휴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휴살림연구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밀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휴과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휴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 휴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시영, 강승희, 고진환,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김광부, 김규운, 김기현, 김남운, 김대수, 김대화, 김동연, 김동진, 김만수,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식, 김수철, 김숙원,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승,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중연, 도재천, 라병현, 라양재, 라영환, 류희희, 민성기, 박건혁, 박기환, 박동운, 박상일, 박승인, 박영구, 박영옥, 박정국, 박정규, 박종삼, 박종수, 박종원, 박종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백미숙, 백운남, 서성내, 서순악, 서위중, 서정수, 석종옥,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홍,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동우, 신문수, 신미영, 신연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택,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원순자,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재,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민,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현구,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중화, 전홍택,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창조, 정청천, 조기진, 조 솔, 조정인, 조중기, 조현국, 주운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봉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종윤, 황기하, 황대호, 황영희, 황인걸

(주)ACT정다운여행사, 가림다마을영농조합, (주)세인, (주)제일그린산업, 한국농식품인증원, (주)휴살림, (농)휴살림푸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 9월 휴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17일	괴산	견학	30	경북농민사관학교 견학
19일	청주	강좌	45	휴의 인문학4 - 정구인 여성살림연대이사(한국화가)
19일	청주	협약	25	충북인삼협동조합 MOU
20일	괴산	견학	8	농진청유기농지도자과정 농장견학
20~21일	괴산	행사		괴산유기농페스티벌
25일	청주	회의	7	휴살림연구소 이사회
25일	화성	교육	40	화성시농기센터-친환경자재만들기
27~10.6일	청주	행사		청원생명축제
30일	익산	교육	30	익산시농기센터-친환경자재만들기